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한 유희공간 재생 시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2019.10.21.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주도의 유희공간 재생을 지원한다.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은 유희공간을 매입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 주민들은 이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농협이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 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언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보증과 대출(이자율 약 2.1~2.2%)을 지원하였다.

사업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375억 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해 2020년 초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산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9년 지역자산화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단체명       | 사업지    | 매입대상 건물                      | 향후 활용 용도         |
|-----------|--------|------------------------------|------------------|
| 별의별       | 전주 완산구 | 노송목공소<br>(공실기간 10년)          | 주민 대상 복합커뮤니티     |
| 자이언트      | 충남 서천군 | 무지개식당, 서광장여관<br>(공실기간 5~10년) |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
| 공유를 위한 창조 | 경남 거제시 | 주민 운영 민박시설<br>(공실기간 4년)      |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

출처: 행정안전부, (2019). 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지역자산화 사업 첫 선, 10월 21일 보도자료